



종이 소년

독서 활동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내가 될 때까지
지독한 슬픔과 외로움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에 대하여



니콜라 디가르드 글 | 케라스코에트 그림 | 값 15,000원 | 초등 전 학년



“우리와 모습은 달라도 어찌면 우리의 마음속엔 ‘종이 소년’이 한 명씩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종이 소년은 종이라서 할 수 있는 신나고 짜릿하고 멋진 일을 보여 주면서, 제 안의 종이 소녀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기운이 빠져도,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언제든 다시 기운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거예요.”

집필 **우서희**(좋아서하는그림책연구회 운영진 서울자운초 교사)

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종이 소년》의 매력



말랑말랑한 피부와 튼튼한 뼈가 아닌, 새하얗고 알브스름한 종이로 만들어진 소년이 있다면? 우리와 모습은 달라도 어찌면 우리의 마음속엔 ‘종이 소년’이 한 명씩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글쭈글해질까 봐 빛속에서 놀지 못하는 종이 소년처럼 우리도 겁이 날 때가 있고, 지우기 힘든 낙서처럼 상처받는 말이 자신에게 달라붙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속의 종이 소년이 괴로워할 때, 저는 앞으로 《종이 소년》을 꺼내어 읽을 거예요. 그리고 종이 소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떠나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갈 거예요.

종이 소년이 처음부터 용기 내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떠난 건 아니예요. 종이 소년은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들의 눈빛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우리는 언제든 너를 짓밟을 수 있다는 협박이었습니. 평범한 아이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종이 소년에게 뭐라고 말해 줘야 할까요? “네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한다.”는 종이 소년의 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대답 같아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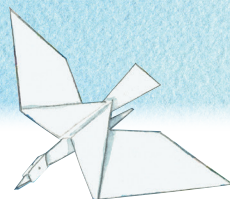
하지만 종이 소년은 엄마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종이 소년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이 너무 싫은데 그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만 한다니. 절규하는 종이 소년의 외침에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졌습니다. 저는 지금껏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서투른 위로를 건넸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종이 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질문이었습니. ‘만약’이라는 질문이요. ‘만약 내 몸을 접을 수 있다면?’ 이 질문으로 종이 소년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맙니다. 종이 소년은 종이라서 할 수 있는 신나고 짜릿하고 멋진 일을 보여 주면서, 제 안의 종이 소녀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기운이 빠져도,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언제든 다시 기운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거예요.

우서희(서울 자운초 교사)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이자 ‘좋아서하는그림책연구회’의 운영진입니다.

*집필 도서 《철학 버스》, 《좋아서 읽습니, 그림책》(공저)



종이 소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종이 소년이 물에 비쳐 일렁이는 자기 자신을 골똘히 바라보고 있어요.
종이 소년은 자기 자신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시 종이기가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



○

○

○

여러분도 종이 소년처럼 거울을 바라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나요?
내 생각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한 것
예시 나 또는 동생	예시 내 눈은 누구를 닮았을까?
○	○
○	○

내가 종이 소년이라면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종이 소년은 엄마에게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아이들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종이 소년을 꼭 안고 "엄마는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했지요. 그러나 종이 소년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종이 소년이 어떤 말을 듣는다면 화가 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을까요?

1. 내가 종이 소년이라면 듣고 싶은 말을 말풍선에 써 보세요.

2.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종이 소년의 표정을 그려 보세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종이 소년은 '만약 나를 접을 수 있다면?'이라는 질문으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만약'이라는 질문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해요. 지금껏 익숙한 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져 보세요. 그리고 진짜 한번 해 보세요!

내가 만약 ○○할 수 있다면?

예시) 만약 내가 요리를 해 본다면?

예시) 만약 내가 피아노를 쳐 본다면?

예시) 만약 내가 등산을 한다면?



실천해 보고 싶은 날짜

예시) 2월 24일

예시) 2월 24일

예시) 2월 24일



종이 소년은 '자기 몸을 접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다른 아이들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처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일은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도해 보고 익숙해지고, 좋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활동 3에서 새로 시도해 본 것들, 그동안 내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재미있어서 했던 활동 중에서 하나의 활동을 정해서 딱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고 그 기록을 남겨 보세요. 분명 일주일 후에는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활동명 (예시) 종이접기, 간식 만들기, 매일 세 줄 글쓰기

날짜

(예시) 2월 24일

실천 기록

(예시) 오늘은 늑대를 접어 보았다. 마지막 얼굴 부분 접는 게 어려워서, 처음부터 다시 했지만 세 번째 했을 때 드디어 성공했다. 뿌듯하다.

프로젝트 소감 (예시) 일주일 동안 해낸 내가 정말 멋지다.

활동명 

날짜 

실천 기록 

프로젝트 소감 



종이 소년처럼 종이접기를 한번 해 볼까요?

1 먼저 이 종이에 아래 물결무늬에 이어서 새의 멋진 무늬를 입혀 주세요.



이여 그리는 곳

2 아래 큐알코드를 따라 지금 이 독후 활동지로 바로 새를 접어 보세요.



© 우리교실이야기